

'5G망 가상화' 이끄는 SKT, 삼성·HPE·인텔과 초협력



'코어망' 전체 가상화 역량 확보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기틀 마련
5G망 가상화 프로세스 도입 가속



(왼쪽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품전략팀장 노원일 전무, HPE 카라 롱 WW HPE 전략 및 프로그램 총괄 부사장, 인텔 덴 로드리제트 네트워크 플랫폼 그룹 총괄 부사장(화면 아래)과 SKT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5G 네트워크 가상화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 인텔과 함께 10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G 네트워크 가상화'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초(超)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글로벌 협력을 통해 5G망 가상화 기술부터 표준 프로세스 수립, 가상화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이뤄짐에 따라 글로벌 이동사 누구나 5G망에 가상화 프로세스 도입

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력으로 5G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뜻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지국', '전송망', '코어망(교환망)', 3대 영역 중 5G 핵심네트워크인 '코어망' 전체를 가상화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네트

워크 혁신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5G네트워크 가상화'는 통신사가 신규 통신 서비스를 위해 개별 하드웨어를 각각 설치하는 대신 범용 서버에 여러 통신 장비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가상화기술을 도입하면 통신사의 차세대 5G 서비스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 5G 고객은 신규 서비스를 더 빨리 즐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각각의 하드웨어 장비를 새로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했지만, 기술도입 후 표준 프로세스를 통해 일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사는 각 사가 보유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서버 장비 등을 상호연동해 차세대 5G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의 글로벌 상용화를 목표로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텔은 차세대 '제온(Xeon)' 프로세서, 이더넷 네트워크 어댑터, SSD 등을 신규 공유하고, HPE는 가상화 서버인 '프로라이드 서버'를 삼성전자에 제공한다. SKT는 삼성전자의 5G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5G 코어

망 등 핵심 네트워크에 검증 단계를 거쳐 상용망에 연동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품전략팀장 노원일 전무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사간 협력체를 통해 최신의 하드웨어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상용망에 조기 적용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T 강종렬 ICT 인프라센터장은 "4사간 글로벌 협력을 통해 차세대 5G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상용화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고, 향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신기술을 지속 개발해 미래 통신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갤 Z폴드2·Z플립 5G 예판 스타트... 이동사 3색 마케팅

SKT 153만원 할인 KT 넷플릭스 LGU+ 버즈라이브

15일까지 사전예약, 18일 정식출시
Z폴드2 239만원, Z플립 5G 165만원

이동통신 3사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신모델인 '갤럭시Z폴드2.5G'와 '갤럭시Z플립 5G'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개통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정식 출시는 18일이다.

이동통신 3사들은 사전 예약시 각종 할인 혜택 및 사은품 증정, 온라인 라이브쇼 등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다. Z폴드2.5G는 256GB 용량으로 ▲화면을 펼쳤을 때 7.6인치 ▲접었을 때 6.2인치 화면으로 시원하게 커진 전면 화면이 특징이며, 다섯 개의 카메라가 탑재됐다. Z폴드2는 239만8000원, Z플립 5G는 165만원이다.

SKT는 갤럭시 Z폴드2·Z플립 5G 예약 판매를 맞아 다양한 혜택 및 초고화질 그룹영상통화 '미더스' 등을 통해 5G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신형 폴더블 휴대폰을 ▲트리플 제휴카드 할인 97만6000원 ▲T안심보상 45만9000원 ▲T모아쿠폰 최대 10만원 적용 등 혜택을 활용해 최대 153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T안심보상 서비스로 노트9.512G A급 기준으로 보상이 25만9000원에 삼성 추가보상 20만원, 기존 적립된 10만 포인트를



KT 모델들이 '갤럭시Z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를 소개하고 있다. /KT

T모아쿠폰으로 전환 시 10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도 11일부터 5일간 갤럭시 Z폴드2·Z플립 5G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KT 고객은 '슈퍼플랜 플러스' 요금제로 5G 데이터와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이상 가입 시, 월 1만 2000원 상당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를 3개월간 제공받아 한국 콘텐츠, 전 세계 TV 시리즈 등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예약판매 기간 중 구매 기간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15일까지 '사전예약' 기간 중 갤럭시 Z폴드2·Z플립 5G 구매고객에게는 삼

성전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 토탈케어 서비스 '삼성케어플러스' 1년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예약 고객 선착순 5만명에게는 1만7000원 상당 모바일게임 '바람의나라: 연' 아이템(태고의 보물 5일/붉은보석 500개)도 지급된다. 사전예약자 중 갤럭시 Z폴드2를 구매한 고객은 삼성전자의 무선이어폰 '버즈 라이브' 또는 케이스패키지를 추가로 받는다.

18일부터 30일까지 '초기구매' 프로모션에서는 갤럭시 Z폴드2를 구매하는 고객은 버즈 라이브나 케이스패키지, 갤럭시 Z플립 5G 구매고객은 버즈 라이브나 디즈니패키지를 고를 수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현대·기아차, 알뜰폰 사업자로 변신

이동통신재판매사업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변경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기존까지 SKT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차량 원격제어, 안전보안, 인포테인먼트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자사 고객에게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로 변경등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동통신, 초연결성 기반의 차량제어·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잡을 것이라 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MVNO)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르노삼성, 쌍용차, 테슬라 코리아 등이 이동통신재판매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7월말 기준 전체 140만 회선을 기록하고 있다. 또 BMW, 아우디폭스바겐은 해외 이동통신사를 통한 로밍 방식으로 국내에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음성 이동전화 중심 MVNO(알뜰폰)가 완성차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기아차, '스팅어 펠로우십'에 문성민 참여

기아자동차가 대한민국 스포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스팅어 스포츠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남자배구 간판스타 문성민 선수가 참여한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스팅어 스포츠 펠로우십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계의 선배가 후배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한국 스포츠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프로스포츠협회 소속 스포츠인 이 스팅어 마스터를 구매하면 50만

원 할인 혜택 제공과 함께 출신학교 또는 후배들에게 총 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크스 배구단 소속 문성민 선수는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 스팅어 스포츠 펠로우십 홍보대사로 참여하고자 스팅어 마스터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구매했다.

문성민 선수는 후원 대상으로 유년 시절부터 배구를 함께해온 동료인 조영성 코치가 지도를 맡은 안산 본오중학교 배구팀을 선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네오밸류프라퍼티와 AI서비스 맞손

KT가 부동산 개발 및 운영사인 네오밸류프라퍼티와 함께 '엘리웨이'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엘리웨이 광고에서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오밸류프라퍼티는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인 네오밸류의 자회사로 복합문

화공간 엘리웨이 광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엘리웨이 운영 노하우를 살려 부동산 운영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네오밸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도심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엘리웨이에 ▲AI 영상보안 서비스 ▲AI 주차 서비스 ▲AI 키오스크 서

비스 ▲지능형 건물 통합관리 개발·적용 ▲AI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네오밸류프라퍼티가 조성하는 모든 공간에는 AI 기반의 출입 시스템 및 주차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엘리웨이 내 식당·문화공간에서는 AI 서빙로봇과 바리스타 로봇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KT와 네오밸류프라퍼티는 도심 공간에서 AI로 한층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현대캐피탈 스카이워크스 배구단 소속 문성민 선수가 스팅어 스포츠 펠로우십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